

“정말 열심히, 자연스럽게 사랑했죠”

배우 정진영, MBC '화려한 유혹'서 '할배 파탈' 매력 돋보여

8개월 대장정 끝에 종영을 앞둔 MBC TV 월화드라마 '화려한 유혹'은 다른건 몰라도 '할배 파탈' 하나는 남겼다.

'할배 파탈'은 할아버지를 뜻하는 방언과 치명적인 매력으로 유혹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프랑스어 옴 파탈(homme fatal)·팜 파탈(Femme fatale)을 합친 말이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책 구절을 읊조리면서 "날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자네야"라고 고백하는 은발 '할배'에 팬스레 마음이 동한다는 시청자가 많았다.

68세의 전직 국무총리 강석현으로 등장해 지난 8일 하차하기 전까지 '할배 파탈' 매력을 뽐내며 배우 정진영(52·사진)을 17일 오전 종로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할배 파탈' 이야기부터 꺼내자 정진영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별명을 얻었어요. 뭔가 강석현 매력을 발산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대본대로 신은수를 향한 사랑에 집중했을 뿐인데 뜻밖에 '할배 파탈' 이야기가 들려서 놀랐어요."

'움직이는 성체'가 원재였던 이 드라마에서 강석현은 돈과 권력으로 이룩한 "더러운 가문의 성주"다. 추악한 욕망이 숨겨진 이 성체에 신은수(최강희 분)라는 여자가 들어오면서 강석현과 그 주변 인물의 삶에 균열이 시작된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강석현은 36살 어린 신은수를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된다. 그 신은수가 강석현 옛 보좌관의 아들 진형우(주상욱)를 놓고 강석현의 혼외딸 강일주(차예련)와 악연이 되면서 이야기는 얽히고설킨다.

정진영은 "강석현이 깊어 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드라마에서 그의 삶이 비극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면서 "강석현이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68세 노인과 딸뻘인 신은수가 결혼까지 이른다는 설정은 갖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요즘 안방극장에서도 파격이었다.

정진영도 처음에는 시청자에게 거부감만 주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적지 않았다.

그는 "어쨌든 시청자를 이해시켜야 하고, 저 자

신도 이해해야 연기로 표현할 수 있기에 최강희씨 자체를 신은수로 보고 노력했다"면서 "정말 열심히, 자연스럽게 신은수를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최강희씨가 신은수로 보였어요.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제 눈은 매혹되는 눈이었어요. 그녀를 보면 눈에 하트가 들었고, 제게 화를 내거나,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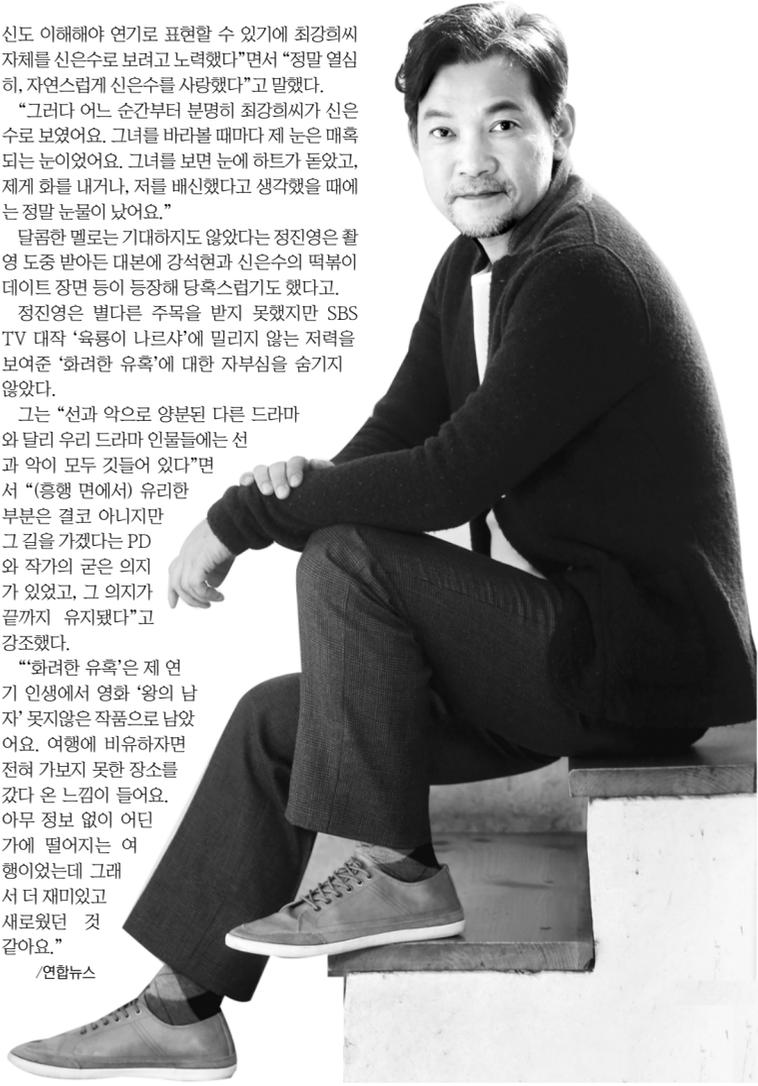
달콤한 멜로는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정진영은 촬영 도중 받아든 대본에 강석현과 신은수의 떡볶이 데이트 장면 등이 등장해 당혹스럽기도 했다.

정진영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SBS TV 대작 '육룡이 나르샤'에 밀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준 '화려한 유혹'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과 악으로 양분된 다른 드라마와 달리 우리 드라마 인물들에는 선과 악이 모두 깃들여 있다"면서 "(홍행 면에서) 유리한 부분은 결코 아니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 PD와 작가의 굳은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끝까지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화려한 유혹'은 제 연기 인생에서 영화 '왕의 남자' 못지않은 작품으로 남았어요. 여행에 비유하자면 전혀 가보지 못한 장소를 갔다 온 느낌이 들어요. 아무 정보 없이 어딘가에 떨어지는 여행이었는데 그래서 더 재미있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연합뉴스



'윈더걸스' 유빈·달사벳 수빈

“악성 루머 강경 대응”

성매매 의혹 명단 거론되자

“억울해 미칠 지경…법적 조치”



윈더걸스의 유빈과 달사벳의 수빈이 악성 루머와의 '전쟁'에 나섰다.

지난 17일부터 자신들에 대한 악성 루머가 담긴 속칭 '짜라시'(증거가 정보지)가 각종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자 법적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몇몇 연예인이 최근 성매매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널리 확산한 이 짜라시에는 '추거 명단'이라며 10여 명에 달하는 여성 가수들과 배우들이 이름이 담겼다.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들의 소속사 측은 "억울해 미칠 지경"이라며 "여성 연예인들로서는 수치스럽고 이미지에 치명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처음에는 굶어 부스럼만 들지 말자는 생각이었는데 터무니없는 루머에 연예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입을 모았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였다."

JYP는 지난 19일 "최근 유빈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담긴 짜라시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현재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빈과 가족들이 여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악성 루머에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루머의 생성과 유포는 물론이고,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

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수빈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허위 사실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는 "허위 사실이 만들어진 짜라시로 인해 수빈이 여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근거 없이 퍼진 비방과 허위 사실은 당사자와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인들이 짜라시로 퍼진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수면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렸다면 이젠 명예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미치는 파장이 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최근 검찰 조사와 관련없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된 만큼, 짜라시로 인한 2차 피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일토당도않은 애기들이 짜라시에 흘러넘치는데, 요즘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시대에는 빠른 속도로 기정사실화된다"며 "소속사들이 과거와 달리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건 그 처벌 수위가 미약해서다. 한층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30 MBC 생활뉴스	30 아침연속극
10 20 시사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여유만만	45 기본 좋은 날	40 내 사위의 여자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KBS네트워크 특선	00 가십남(재)	00 그린실버	00 아침 365
12	55 별별가족(재)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00 출발드림팀 2(재)	00 MBC 정오 뉴스	00 SBS 12 뉴스
2 30 직언직실	00 공정한 일요일 정경실 쇼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10 통일 전망대	10 닥터 365
3	00 명연만리(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10 시사토크	10 SBS 12 뉴스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30 자동차부착성 위키	10 똑똑 키즈스쿨	10 똑똑 키즈스쿨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00 KBS 뉴스타임	1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6	20 시사진단	00 클로벌 남편백서	25 MBC 일일특별기획	25 MBC 일일특별기획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00 MBC이브닝 뉴스	30 아름다운 당신(재)	30 아름다운 당신(재)
8 20 TV 주치의닥터지바고	00 KBS 뉴스5	00 KBS 글로벌 24	10 생방송 '빛날'	10 생방송 '빛날'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9	00 KBS 글로벌 24	05 날씨와 생활	05 날씨와 생활
10	00 가요무대	00 KBS 글로벌 24	15 고강건록	15 고강건록
11 4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00 KBS 글로벌 24	20 일일연속극	20 일일연속극
12 40 특별기획	00 KBS 뉴스40	00 KBS 글로벌 24	55 MBC 일일특별기획	55 MBC 일일특별기획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라이보 토크 (부모)	15:00 모피와 친구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5:30 건강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40 다크 오늘
05:40 성공시대 가능 한국인	11:00 차돌박이두부조림	15:20 피터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06:10 EBS 인문학 특강	11:40 한국기행	15:35 꼬마기사 마이크	21:30 한국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2:00 EBS 정오 뉴스	15:50 으랏차차 아이쿠	22:45 달라라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감 (우리)	16:00 캐니멀(재)	23:35 시대공감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e	16:30 코코코 다코	24:05 지식채널 e
08:00 덩동명 유치원 1~3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6:45 덩동명 유치원 1~3(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08:45 코코코 다코	13:40 출겨운 수학 EBS MATH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09:00 캐니멀	13:50 윈더볼츠(재)	17:45 로보카 폴리	
09:30 윈더볼츠	14:0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특목보! 보니하니1~4	
	14:30 부릉부릉 부밍미즈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1일 (음 2월 13일 壬寅)	
子	48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60년생 활력소가 되어 줄 만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72년생 철저한 준비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84년생 황상 똑같이 보아 왔다면 문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51	午	42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어니 되느니라. 54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한다. 66년생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78년생 노파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5, 57
丑	49년생 지리한 자세와 태도가 절실하다. 61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73년생 기본적인 것이 튼튼해야 전망이 밝아진다. 85년생 공들여 왔던 일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21	未	43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만 후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5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67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79년생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준수하라. 행운의 숫자 : 58, 46
寅	50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62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74년생 평상시에 잘 갖추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덕을 보게 되리라. 86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29, 70	申	44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입장이 된다. 56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68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80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47, 74
卯	51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내야 한다. 63년생 불합리함을 차치하고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는 국세로다. 75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87년생 배려하는 입장에 서면 꼬인 일도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96, 35	酉	45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57년생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느니라. 69년생 바퀴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 하느니라. 81년생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리라. 행운의 숫자 : 68, 49
辰	40년생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함이 나올 것이다. 52년생 알고 있어야 피해갈 수 있다. 64년생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76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88년생 흥내 내다가는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6, 77	戌	46년생 옛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며, 구원이 명관이다. 58년생 흥정을 하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 70년생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겠다. 82년생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만 실수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8, 88
巳	41년생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53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65년생 주권이 필요하도다. 77년생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리라. 89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5, 04	亥	47년생 집진적인 활동이 안정 궤도로 이끌 것이다. 59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71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점의 해결을 호소하리라. 83년생 제반 사정을 처치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81, 83